

‘우주산업’ 대전 끼워넣기... 고흥 기능약화 우려

전남 발사체 산업·경남 위성 산업
2개의 클러스터 지정 원칙에서
대전 연구·인재 개발 3개 축으로
우주산업 육성 전략 변화 예고
전남 R&D 기능 축소·제한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특화지구) 지정·육성 사업에 대한 기초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면서 전남도가 바짝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발사체·위성 클러스터 2개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 하겠다’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와 상이한 정책 추진 입장을 예고하면서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나사·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전남·경남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전략은 정부의 기존 방침에서 변화된 것으로, 뚜렷한 정책 기초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7일 열린 제 42회 우주개발진흥심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과는 달린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는 지역 산업계 분석이다.

예전 과기정통부는 발사체 클러스터(특화지구), 위성 클러스터 등 2곳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관련 인프라(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별 각 1개씩(총 2개)만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추후 필요시 특화지구 추가 지정 등 검토 추진’이라는 단서가 포함되긴 했지만,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고흥과 경남 사천을 감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고흥엔 나로우주센터, 사천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위치해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 발언으로 이 같은 지정 원칙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오는 9월에 예정된 클러스터 최종 지정 지역 발표 때 ‘추가 지정지’를 포함할 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우주 핵심 인프라 구축 및 특화산업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검토해온 만큼 자칫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엿보인다.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인재 개발 분야 클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주산업과 관련해 대전·전남·경남 등 3개 축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에 따라, 애초 고흥과 경남 사천의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KSLV-II)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기립하고 있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스터가 추가 지정될 경우,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에서의 연구·인재 개발 등 R&D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한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사체 분야 연구·인재 개발 등이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

만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 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추가 지정할 때에도 발사체, 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곳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고흥 봉래면 외나로도 일대 28.4km를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 간 8082억원을 투입해 7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총장 이원석·공정위원장 한기정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와 자원의료 사건도 수사한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수사 지원뿐 아니라 조직 안정과 정권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모두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기정 후보자는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과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검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역대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개편 홍보 강화 새 홍보수석 김은혜 내정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대통령실 인적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언급한 이후 구체적인 대통령실 개편안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18일 일간지를 드러낸 1차 개편안은 정책·홍보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직제 개편 및 인적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홍보라인을 교체하는 방안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민, 내각, 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전격 폐지한 정책실 기능을 일부 되살리려는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초대 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다.

김 실장은 기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에 대해선 “부산 엑스포 유치, 그제 국가적 현안이 워낙 커서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시적인 미래전략비서관과 협업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2실 5수석’은 일단 ‘2실 6수석’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보라인 개편도 오는 21일 발표된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직접 브리핑에 나서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도 겸임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기존 최영범 수석은 홍보보좌관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 전 의원 합류에 따라 홍보수석실 내부 연쇄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새 정부 성과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보고, 보다 공격적이면서도 대국민 친화적인 홍보 전략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업무를 이끄는 민정수석실이나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슬립업’ 대통령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일부 실무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고 거래 늘어나자 사기·분쟁도 급증 ▶6면
- 복스 - '미술의 위대한 스캔들' ▶14·15면
- 손흥민·황희찬 20일 'EPL 코리아인 데뷔'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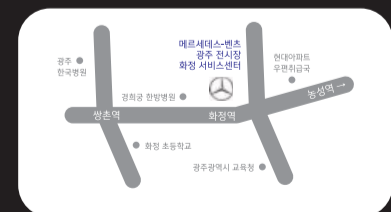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B

This is for new dimens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삼동대로 1041(동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O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km) : 4.1(도상: 4.4, 고속도로: 3.8) 1회 충전거리(km) : 313, 공차중량(kg) : 2110, 배터리 용량(kWh) : 66.5
* 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